



국제도서전이 시장이다

쉴새없이 상담이 이어지고 우리나라 인쇄수준에 대해 놀라움을 나타내는가 하면 인쇄종주국을 알리는 협회 홍보용 인쇄물을 접하고는 태도가 달라지는 사례도 경험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상담이 계약으로 이어져서 수출과 직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비교적 성공이라는 참가 인쇄사 관계자들의 평가이고 보면 잠재적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패러다임을 바꿔보면 국제도서전이야말로 인쇄인에게는 무한한 시장인 셈이다.

지금까지 국제도서전시회를 보는 인쇄인들의 관심은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것이 적절한 표현인 듯 하다. 과거 극소수의 인쇄사가 각종 국제도서전에 간헐적으로 참가한 적이 있으나 관심을 끌만한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0월19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은 몇 가지 눈여겨 볼 만한 관점이 있었다.

세계 1백여개 나라에서 7천2백여 출판사가 참가한 이번 도서전은 우리나라가 주빈국으로 참가, 각종 행사를 주도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출판대국으로 각인 시키는 한편 문화와 전통을 세계 각국에 널리 알리는데 성공했다는 후한 평가를 받았다.

국내 출판업계에서도 지난해에는 13개사가 참가했었지만 올해에는 74개사가 참가하여 폭넓은 활동을 했다.

특히 전체적인 흐름에 묻혀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올해에는 대한인쇄문화협회가 50평방미터(약17평)의 자체전시면적을 확보하고 5개 인쇄사 및 1개 제지회사가 당당히 관측활동을 벌였으며 이외에도 3개 인쇄사가 별도 전시공간을 갖고 출품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현장에서 지켜 본 참가 인쇄사들의 현황은 쉴새없이 상담이 이어지고 우리나라 인쇄수준에 대해 놀라움을 나타내는가 하면 인쇄종주국을 알리는 협회 홍보용 인쇄물을 접하고는 태도가 달라지는 사례도 경험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상담이 계약으로 이어져서 수출과 직결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도서전 참가가 비교적 성공이라는 참가 인쇄사 관계자들의 평가이고 보면 일단 잠재적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패러다임을 바꿔보면 국제도서전이야말로 인쇄인에게는 무한한 시장인 셈이다.

잠재고객인 세계 유명 출판사가 총출동하는 전시회에서 인쇄수준을 선 보이고 수주에 뛰어들다든가 현장에서 요령껏(?) 출판사를 직접 방문해서 수주 공략에 나서는 것도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최근 출협 발표에 의하면 현장에서 성사된 저작권 계약이 352건(약370만달러)에 이르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일부 경쟁력 있는 출판사를 제외하고는 한산(?)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도 안타깝게 느껴졌다.

물론 문화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번역서 중에도 국내 특정시대, 특정지역에 관한 서적이 외국인에게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지 관한 걱정도 해 보았다.

재미있는 현상이지만 국제도서전도 잘사는 나라, 선진국 순으로 활기찬 순위가 매겨지고 있는 듯 했다. 미국관은 가방수색을 받고 들어가야 하는데도 북적였고 유럽, 일본전시관 역시 늘 많은 사람의 발길이 이어졌으나 아시아, 아프리카, 동구권 등은 파리를 날리는(?) 곳이 적지 않았으며 우리나라도 이런 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이 아닌 것 같다는 표면적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인쇄인들이 국제인쇄기자재전시회를 보기 위해서는 대규모로 참가하곤 했는데 앞으로는 국제도서전에 직접 인쇄물과 '기술수준'을 들고 참가하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인쇄물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인쇄사의 국제도서전 참가도 확실한 대안중의 하나라고 지적할 수 있겠다. 출판인들의 추산에 의하면 이번 전시회에는 3천명 가까운 출판인들이 프랑크푸르트를 다녀왔다고 한다.

(오세익 · 편집주간)